

## 6. 구원의 계획과 예정에 대하여

2012. 2. 5.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동티난 사실을 근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사와 우주 다른 세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구원의 계획과 예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서 들으시면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 탐험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8:4,5]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지구의 장자권을 탈환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천사들과 우주의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사실이 구주의 구원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애청자들이 그 사실이 궁금할 것입니다.

답: 오늘은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과 같은 시8:4,5을 낭독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루시퍼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하여 패배한 다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바로 지구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지구를 창조할 때 기쁘게 소리했던 지고보다 먼저 창조된 다른 우주 세계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유다서 1:13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천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계시록 12:3,4에보면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같이 땅으로 쫓겨난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유리하는 별들로서 우주의 사람들이 창조된 다른 세계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자기들의 동지를 틀려고 다닌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발붙일 곳이 없었지요. 우주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5:20에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미가엘과 루시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이 다른 세계에 발붙이려고 할 때에 있었던 어떤 국면에 포함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루시퍼는 어떤 세계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세계 거민들에게 의아심을 일으키는데는 얼마만큼 성공했을 수도 있지요. 루시퍼의 위치가 덮는 그룹이고 계명성이라는 이름과 기쁨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루시퍼의 주장이 100% 엉터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을 수도 있으

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기로 하지요.

2. 목사님이 엮어가는 성경의 사슬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 꿰어지는군요.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지구에서는 성공을 했을까요?

답: 예, 바로 거기에 구원의 사업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당연히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지요. 이사야40:26을 읽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는 말은 얼마만큼의 천체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현되었다는 것을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데 차례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2:1을 읽으면 그 순서 중에 지구와 관계된 것을 창조하는 것이 가장 나중에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칼라”인데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구와 그와 관계되는 것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사는 세계로는 지구가 맨 나중에 창조된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했을 때 먼저 지음을 받은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를 위하여 한 마디 한다면 욥기 38:4~7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새벽별들로 표상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하고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않고 제 자리를 떠나 유리하는 별이 되었을 때 이 지구 창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장자 부부는 루시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기 전에 루시퍼가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의 사람의 시조가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그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창조된 연륜이 있었으니까 지구 아담과는 다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루시퍼는 등지를 틀고 이것들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천사의 유혹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속은 것이지요.

3. 예, 아주 정연합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주 거민들의 마음에 루시퍼가 의혹을 남길 수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그렇지요. 당연히 이야기해야지요. 골로새 1:20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구의 사람들에게만 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도 화평의 효험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죄에 빠진 존재가 아닌데 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루시퍼의 악선전에 하늘에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의아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말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목격하고 루시퍼의 선전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의구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점 하나라도 없는 완전한 화평을 이룬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계시합니다.

[계15:2~4]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온 우주가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이지요. 이제는 사단이 된 루시퍼는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욕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사단은 결코 그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지요. 십자가로 사단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서 다만 사형이 집행 될 때까지 발악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줍니다. 계12:12과 마8:29을 좀 읽으시겠습니까?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8:29]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있다고 했지요. 마태복음에서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사형집행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 이해하고 이제는 구원의 경륜에 대한 것을 말씀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타락과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되도록 정했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그것이 예지이고 모든 것을 안다는 진짜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대로 되록 해놓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광명정대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제 말이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논리인데, 성경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지구와 이 중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상태는 죄가 들어와서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아신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도 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5. 그러면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예정과 예언의 구체적인 차이는 어떤 것인지요?

답: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정은 예정할 수 있는 자가 미리 그렇게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예언하는 분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 없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예언이지요. 성경은 예언이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시지 예정해놓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6. 그러면 범죄와 타락과 구원의 경륜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뜻입니까?

답: 그 말씀은 단순하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몰랐다고 말할 수 없지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것도 아셨지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구속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해야 할 이유 없이 그 이름에 구속과 심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알면 예정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름에 대하여서는 작년 재작년 이 방송에서 이미 상당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 문제와 관계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호와는 기념 칭호입니다. 호세아12:5과 출3:15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적어도 네 가지 기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존재 방법의 기념이고, 둘째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며 셋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고 넷째는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셋째 넷째가 구원의 경륜과 관계가 깊은 기념들입니다.

7. 심판주로서의 기념과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에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말씀인데, 그 기념이 어떻게 구속의 경륜이 되지요?

답: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 외에는 우주에 결코 스스로 있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외의 모든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가 있게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설명에 첫째 둘째 기념이 설명된 셈이네요. 그런데 여호와가 있게 한 것, 곧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존재에게 여호와께서 창조해준 존재는 여호와께 반납하고 있어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래야 여호와와 상관없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 받은 존재를 반납하면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지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심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9:16,17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신다고 계시했습니다. 루시퍼와 그 천사들은 그들의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여호와와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속의 기간을 반역과 전쟁을 보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존재를 반납할 시기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안다는 말로 계12:12에 표현했지요. 그런데 이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간 이 지구의 시조도 루시퍼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 말씀은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준 것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것이지요. 루시퍼에게 그릇된 생각을 버리도록 사랑으로 타이르신 말씀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속아서 루시퍼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생명과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한 것이 창3:15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은 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어느 날 말한 대로 구원에 대한 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것은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쁨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낼 경우가 되었을 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8.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쁨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 이런 예를 말할 수 있겠네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면 무엇이 되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니까?

김영진 목사: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이지요.

김명호 목사: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것 말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김영진: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도 있지요.

답: 예,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라는 칭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니까?

김목사: 자녀의 성장에 대한 모든 책임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답: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변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학교 기물을 파괴하고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히면 그 변상을 부모가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라고 예정하고 그렇게 되면 변상할 것도 예정한 것이 아니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런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것이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났다. 말이 됩니까?

김목사: 예, 아주 합리적입니다.

답: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루시퍼나 아담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런 사고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부모라는 칭호에 포함되었던 책임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래서 예정을 말하는 것 같은 성경구절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그러나 말씀 구절 찾아보고,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합시다. 먼저 로마16:25,26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롬16:25~27]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부모라는 칭호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이 나타났더라는 의미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런 표현은 딤후1:9이나, 딤후1:1,2절에도 있고 벴전1:19,20에도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누기로 하지요. 이 예정이라는 문제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고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쪼록 애청자들께서도 올바른 이해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믿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 안에 구원의 도리가 포함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도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